



국립광주박물관은 8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역사문화실을 처음 공개했다. <광주박물관 제공>

남도의 빛나던 시간을 담다

순천 월평의 구석기 유물, 화순 대곡리 청동기 유물, 고흥 안동고분 투구와 갑옷,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

구석기부터 조선에 이르는 남도의 빛나던 시간을 담고 있는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이 8일 역사문화실을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끈다.

역사문화실 공개는 지난해 12월 아시아도자문화홀에서 이어 진행된 상설전시실 개편 사업 일환으로, 광주전남 위상을 알 수 있는 유물과 인물, 자료 위주로 구성했다.

역사문화실은 모두 2개의 실로 이루어져 있다. 1실은 선사시대부터 삼한-삼국시대까지, 2실은 남북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를 아우른다.

1실에 들어서면 다양한 구석기 유물에 압도된다. 주먹도끼, 스페찌르개 등 생김새부터 이색적인 유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거친 도끼부터 정교한 돌날 등 구석기 시대 유물은 우리 지역 역사가 약 6만5000년 전부터 시작됐음을 방증한다.

조개 팔찌와 흙인형 등의 장식품을 비롯해 생계도구와 지역 간 교역을 알 수 있는 신석기 유물도 눈에 띈다. 구석기에 비해 정교해진 도구는 인간의 손, 두뇌 등 인류학적인 부분과 연계해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청동기시대에서는 마을 유적과 고인돌 유적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고인돌 무덤에서 찾은 토기와 석기 등은 이전 시대와는 다른 모양과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문화의 진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초기철기시대 화순 대곡리 청동거울과 팔주령(국보 제143호)은 우리 지역 문화의 자존심이라 해도 될 만큼 정교하다.

우리나라 최대 북방농경 유적인 광주 신창동유적 출토품을 보는 감회도 새롭다. '2000년 전의 타임캡슐'이라는 별칭에 맞게 이곳에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청동기시대 어느 하루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든다. 습지에서 출토된 칼, 활, 쏬 등 비례해 영산강 유역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철기그릇을 볼 수 있다.

당시의 약기를 복원한 현악기는 지금의 그것과 형태면에서 사뭇 유사하다. 옛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노동의

수고를 달래기 위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마차의 바퀴를 복원한 전시품도 발길을 붙든다. 어림잡아 반경 2m는 넘어 보이는 바퀴는 단순한 농사용 수레인지 아니면 공격과 방어를 위한 군사용 수레인지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처럼 신창동의 다양한 나무 유물과 토기 등이 '생계 활동', '수공업', '의례'라는 세 주제로 나뉘어 있어 당시 거주했던 옛 사람들 생활과 문화를 조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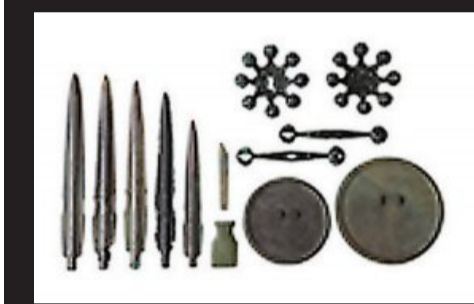
삼한-삼국시대에서는 금속 유물과 돌날이 '주인공'이다. 마한-백제시대에 걸쳐 출토된 토기와 고분은 우리 지역 문화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유물로 손색이 없다. 특히 장고 모양 무덤인 함평 신덕고분에서 나온 금동관 조각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상류층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귀한 자료다.

아울러 나주 북암리유적, 강진 월남사지 등에서 출토된 기와나 도가니는 고대사회가 백제 일원으로 참여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2실은 남북국시대 유물로 시작한다. 구례 화엄사는 통일신라 화엄 신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9세기 무렵 화엄사 각광전에 설치됐던 '화엄석경' (돌에 새긴 대방광불 화엄경) 중 일부가 광주박물관과 화엄사의 교류협약에 따라 전시된다. 통일신라 후기 광주전남은 동리산문과 가지산문 등 선종 불교가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박물관은 이번에 로비에 있던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국보 제103호)을 2실로 옮겼다. 로비에 있을 때보다 입체감과 조형성이 두드러진다.

고려시대는 불교문화가 꽃피고 향리나 민중이 불교 활동에 적극 참여한 시기다. 영암도기박물관 소장 '영암 성종사지 오층석탑 사리장엄구'나 '영광 입암리 매황비' 입체탑본 등을 통해 당시의 불교를 가늠할 수 있다. 고려 후기 불교계 혼란을 비판하며 보조국사·진각국사가 주도한 수선결사(수선결사)와 원묘국사가 이끈 백련결사의 교단 정화 운동도 접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에 대한 이야기 도 빼놓을 수 없다. 성리학 세계관의 확립에 기여한 필문 이선제의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 (보물 제1993호)와 하서 김인후의 '하서집' 등이 그것이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화순 대곡리 청동기 유물

국립광주박물관 역사문화실 첫 공개 구석기~조선시대 유물 한자리에 화순 대곡리 유적·심득경 초상화 등



윤두서 작 '심득경 초상'



'태생'

'화양연화' 조각가 박민광 개인전 영산강문화관 온라인 전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뜻하는 '화양연화(花樣年華)'라는 단어 속에는 추억과 그리움의 느낌이 함께 담겨 있다.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워터웨이플러즈 영산강문화관이 조각가 박민광 개인전을 4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화양연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박 작가는 누군가의 좋았던 때에 대한 그리움을 중년의 나이에 한 여인의 감성으로 표현해낸 조각 작품들을 선보인다.

해부학에 근거한 사실적인 인체 작업을 진행해온 박 작가는 여인의 심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여인상

과 함께 꽃과 나비를 자주 등장시킨다. 꽃의 여왕 장미는 여인의 아름답고 열정적인 삶에 대한 찬사이며 꽃송이 전체가 한 번에 떨어지는 동백은 여인의 내적 강인함을 표현한다. 또한 나비는 남성과 동시에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작가는 인간의 삶과 현실, 꿈과 희망을 표현했다고 설명한다.

박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조소를 전공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에서 리얼리즘 조각을 공부했다. 온라인 전시 영상은 영산강문화관 유튜브 채널에서 관람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듀오 '피다'

김용걸

하프와 플루트 그리고 발레가 전하는 봄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1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시립발레단 '살롱콘서트' 13일 문예회관 소극장

올 봄, 하프와 플루트의 선율과 발레의 향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제353회 정기연주회 '봄'이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향의 올해 첫 정기연주회로 김영연 상임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협연자로 듀오 '피다'가 무대에 오른다.

1부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작곡한 황호준의 관현악 서곡 '빛이 있는 마을'로 문을 연다.

이어 듀오 피다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을 들려준다. 듀오 피다는 하프리스트 황세희와 플루티스트 한여진으로 구성된 팀이다. 황세희는 2014년 미국 라이언 & 힐리 어워드에서 수상했고, 프랑스 국제 하프 콩쿠르에서도 대상을 받았다. 한여진은 12세 때 일본 비와코 국제 플루트 콩쿠르 일반부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최이자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2부에서는 슈만의 교향곡 제1번 '봄'을

연주한다. 이 곡은 슈만이 교향곡에 대한 오랜 야망을 불태운 끝에 완성한 첫 번째 교향곡으로 브람스와 브루크너로 이어지는 '교향곡의 봄'을 불러온 작품이기도 하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코로나 19로 한차례 연기됐던 광주시립발레단의 '발레살롱콘서트#1-브루흐&바흐스위트 by 김용걸'이 관객과 만난다. 13일 오후 2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번 콘서트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안무가인 김용걸의 창작 작품을 준비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전 악장과 바흐의 '파르티타 1번',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등으로 구성된 바흐 모음곡에 맞춘 안무를 선보인다. 무대에는 공유민·우건희·강민지·김희준·전진미·보그만 등이 오른다. 발레 작품에 대한 해설과 관객과의 소통은 광주시립발레단 최태지 예술감독과 김용걸 안무가가 함께 맡는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R석 1만 5000원, S석 1만원, A석 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복 치맛자락에 포효하는 호랑이

윤미애 개인전, 15일까지 LH휴광갤러리

전통 한복 치마에 포효하는 호랑이가 보인다. 은은한 꽃그림이 그려진 치마는 초록빛이 한 가득이다. 아름다운 우리 한복이 다채로운 그림과 어우러져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다.

한복디자이너 윤미애 작가는 '한복에 그림 그리는 여자'로 불린다. 지난 1989년부터 한복에 자신만의 느낌을 담은 그림을 그려온 윤 작가가 25년만에 첫 개인전을 연다.

한복디자이너 윤미애 작가 개인전이 오는 15일까지 광주시 서구 한국도자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 LH휴광갤러리에서 열린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윤 작가는 1세대 한복 디자이너로 꼽히는 이리자 선생의 작품을 시작으로 이영희·백영자 등 유명 디자이너의 무대 의상에 그림을 그렸다. 이후 광주로 내려온 그는 직접 한복숍을 운영하며 각종 쇼 무대 의상 등을 제작해왔으며 사군자를 테마로 한 한복쇼 무대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복을 짓는 디자이너로,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그녀는 늦깎이로 조선대에서 섬유패션을 전공하며 이론 공부에도 열중하



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신이 지은 한복에 다양한 그림을 그린 작품을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